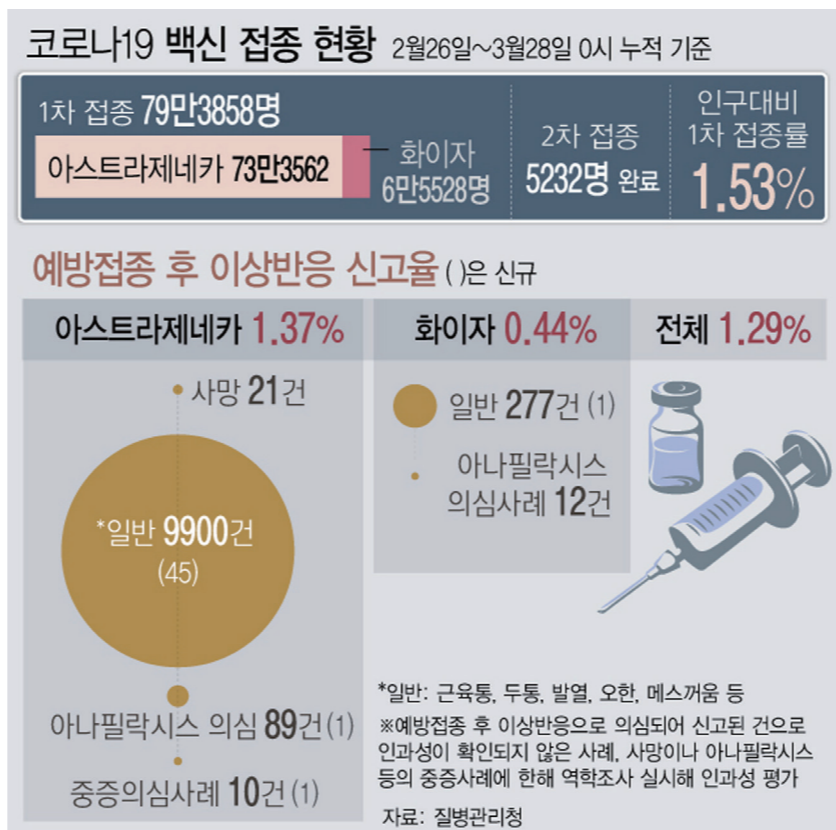


코로나 백신 1차 접종 '79만3858명'

27일 1056명 신규접종...전국민 1.53% 1차 완료
 접종 후 이상반응 총 1만309건...신고율 1.29%
 아나필락시스·중증 의심 신고사례 각 1건 추가
 접종 후 사망 신고 사례 추가 없어 누적 21명

코로나19 백신 1차 예방접종을 마친 접종자가 80만명에 육박했다. 전국민의 1.53%가 1차 접종을 끝냈다.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의심되며 당국에 신고한 사례는 48건 늘었다. 추가 보고된 사망 사례는 없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28일 0시 기준으로 신규 1차 접종자는 1056명이다. 여기에 지난 17일과 23~26일 접종자 528명까지 포함해 누적 1차 접종자는 79만3858명이다. 백신별 1차 접종자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73만3562명, 화이자 백신 6만296명이다. 화이자 2차 신규 접종자는 없어 전날 5232명을 유지했다. 전 국민(5182만5932명·올해 1월 주민등록 인구의 1.53%가 1차 접종을 마쳤다. 1분기 접종자 중 신규 1차 접종자는 889명이다. 이로써 1분기 접종 대상자 71만9902명에 대한 1차 접종을 끝냈다. 접종률로는 84.3%다. 접종 대상별로 보면 요양병원 65세 미만 접종 대상자 20만9057명 중 18만2245명이 접종을 마쳐 접종률은 87.0%다. 요양시설 65세 미만 접종 대상자 11만961명 중 1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9만9910명으로 접종률은 90.0%다.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은 7만8829명 중 6만692명이 접종해 접종률은 77.0%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접종 대상자 38만9378명 중 1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31만6329명으로 접종률은 81.2%다. 2차 접종이 진행 중인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의 경우 6만4339명 중 6만296명이 1차 접종을 마쳐 접종률은 93.7%다. 2차 접종자는 5232명으로 8.1%의 접종률을 보인다. 2분기 접종자 중 신규로 167명이 접종받아 누적 접종자는 7만3956명이다. 접종률은 19.6%였다. 구체적으로는 요양병원 65세 이상 접종 대상자 20만7628명 중 접종자는 6만5832명, 접종률은 31.7%다. 요양시설 65세 이상 접종 대상자 16만9913명 중 1차 접종자는 8124명으로 접종률은 4.8%다. 추진단은 지난달 26일 요양병원·시설, 노인요양시설, 정신재활·요양시설 만 65세 미만 입원·입소·종사자를 시작으로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종사자,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다. 지난 23일부터 2분기 접종 대상자인 요양병원 만 65세 이상 입원 환자와 종사자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고 있다. 요양시설 만 65세 이상 접종 대상자는 이달 30일부터 접



종 예정이지만, 지자체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수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 신고된 사례는 48건 늘어 총 1만309건이다. 신고율은 1~2차 접종자 총합 대비 1.29%다. 백신별 이상반응 신고율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37%, 화이자 백신 0.44%다. 신규 의심 신고된 사례 중 46건은 예방접종 후 흔히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일반 이상반응 사례다. 1건은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다른 1건은 경련 등 중증 의심 사례다. 예방접종 후 숨췄다고 추가 보고된 건수는 없었다. 이로써 일반 이상반응 누적 건수는 1만177건으로 늘었다.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101건 중 아나필락시스 양 반응은 95건이다. 이는 예방접종 후 2시간 이내에 호흡 곤란, 두드러기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로, 중증 이상반응으로 분류되는 아나필락시스와는 다르다. 중증 이상반응으로 분류되는 아나필락시스 소견은 6건, 중증 의심 사례는 10건(경련 등 신경계 반응 7건·중환자실 입원 3건)이다. 사망 신고 사례는 누적 21건이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돼 신고된 건은 인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사례다. 추진단은 사망이나 아나필락시스 등의 중증 사례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해 인과성을 평가하고, 주간 단위로 신고 현황 점검을 통해 경신한다. 김민정기자

순천경찰, 안전속도 5030 전면시행 홍보

순천경찰서(서장 조영일)는 순천시,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와 합동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안전속도 5030정책이 오는 4월 17일 전면 시행됨에 따라 대대적인 홍보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정부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도심부 주요 도로는 50km/h,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h로 제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순천시는 최근 순천시,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 순천교통과 협업을 통해 관내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버스정보안내시스템(BIS), 가변정보표지판(VMS), 주요 교차부 현수막 설치, 순천시 시내버스 뒷면에 홍보용 차량 스티커를 부착 등을 활용한 운전자 및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순천경찰서장은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는 슬로건으로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찰과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전했다. 순천=김승호기자

보성경찰, 1/4분기 교통안전시설심의회 개최

보성경찰서(서장 박임규)는 25일 2층 소회의실에서 '2021년 1/4분기 교통안전시설 심의회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주민의 교통시설개선 요구사항 25건을 접수·심의 하였다. 선정된 안전에 대해서 균형 등 관계기관에 조속히 통보하여 시설물을 보완할 예정이다. 박임규 보성경찰서장은 "교통사고 위험 장소를 적극 발굴·개선 함으로써 군민이 안전하게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열린마음으로 심사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보성=김명숙기자

무안소방, 코로나예방접종센터 화재진압·현장적응훈련

무안소방서(서장 박원국)는 26일 무안군 코로나19예방접종센터의 무안소포츠파크와 남악다목적생활체육관을 대상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4월에 예정된 코로나19예방접종센터 운영에 앞서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접종기간 무안군민이 안전하게 예방접종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재진압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소방훈련 주요 내용은 △소방차 부서 선정 및 출동로 확보 △3차위소방대 초기화재 진압 및 인명대피 훈련 △상황별 화재진압훈련 △관제차에 대한 화재 예방 및 초기 대응 요령 교육 등이다. 박원국 무안소방서장은 "전 국민의 면역 확보와 직결된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의 개소를 앞두고 실질적인 내용의 맞춤형 훈련을 통하여 유사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안=이기성기자

강진경찰,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시행 위한 논의 가져

강진경찰서(총경 박승기)는 지난 26일 전남도의회 차영수의원(더불어민주당, 강진)을 초청해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오는 7월 1일 자치경찰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전남도의회에서 "전라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 절차가 진행중인 가운데, 차영수 도의원과 자치경찰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기 위해 자리를 마련하였다. 강진경찰은 조례 제정시 경찰의 임무 범위내에서 자치경찰사무가 정해져야 하며, 구체적 사항과 범위를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최소한의 절차로 전라남도경찰청장의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박승기 서장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을 연계해 주민 만족·행복 치안을 펼치고,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시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오는 4월 21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자치경찰제 관련 조례안을 상정기로 하였다. 강진=김영일기자

마스크 착용 거부하던 30대...“인권침해 당했다” 신고

하차 요구하는 버스기사에게 욕설 난동
 끝내 안 내려 결국 다른 승객 전원 환승

버스기사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난동을 부리며 되레 '인권침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112에 신고한 3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모욕 혐의를 받는 김모(39)씨에게 지난 24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1일 새벽 5시35분께 서울 은평구에서 버스에 타던 중 버스기사가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하

자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하차를 요구하는 버스기사에게 '웃으로 가릴테니까 그냥 가자'며 "개XX", "XXX, 마음대로 해라 나는 안내린다"는 등의 욕설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씨는 또 "XXXX가 내 인권을 그렇게 떨어뜨리냐"며 되레 112 신고를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김씨는 하차 하지 않았고 버스 안에 있던 승객들은 모두 다른 버스로 옮겨야 했다"고 한다. 이 부장판사는 "범행 당시 이미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과 관련 기준이 널리 알려져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차요구에 불응하면서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늦게나마 피해자를 찾아가 사과했고 용서 받은 점은 유리한 정황"이라며 "형사처벌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유리한 정황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